

이수 김준성 명예회장 경제서적 집필

문예지 21세기문학과의 대담에서 밝혀 ... 경제 살리기 방법론 제시

경제부총리, 한국은행 총재 등을 역임한 원로 소설가 김준성 이수화학 명예회장이 “경제적 실무에 관한 내용을 책으로 쓰고 있다”고 밝혔다.

김준성 명예회장은 5월17일 출간된 문학 계간지 <21세기문학> 여름호에 실린 김종희 경희대 교수와의 대담에서 “정권 교체기에 다음 정권의 담당자들이 참고할 수 있는 경제논리를 제시하는 것이 오랜 경험을 가진 사람의 책무가 아닐까 싶다”고 말했다.

2007년 미수(米壽)를 맞은 김준성 명예회장은 “우수한 인적 자원과 박정희 대통령이 추진한 수출중심 경제구조가 경제를 성장시킨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성장의 방식이 한계에 부딪칠 때 건설한 중소기업과 내수의 활성화가 이루어져야 경제를 살릴 수 있다”며 집필 방향을 설명했다.

김준성 명예회장은 “2006년 소설을 한 편도 못 썼다”며 “경제와 문학 사이를 걸어온 내가 우리 경제가 이 모양인데 이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강박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다”고 털어놓았다.

또 “경제 책에는 경제 실무가로서 사회적 책임을 감당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국내외 자료와 상세한 방법론을 담도록 하겠다”고 밝히고 “앞으로 노인문학 성향의 소설에 주력해보려 한다”고 덧붙였다.

1950년대 초 등단한 김준성 명예회장은 <들리는 빛> <문명인쇄소> <비둘기 역설> <복제인간> 등 소설작품을 꾸준히 발표했으며 1997년 <21세기문학>을 창간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7/05/18>